

# 광주FC, 정규리그 마지막 승점 사냥 나선다

24일 수원서 K리그1 24R... 승점 확보로 분위기 전환 시급  
‘4강 확정’ K리그2 전남 드래곤즈는 23일 김천서 3위 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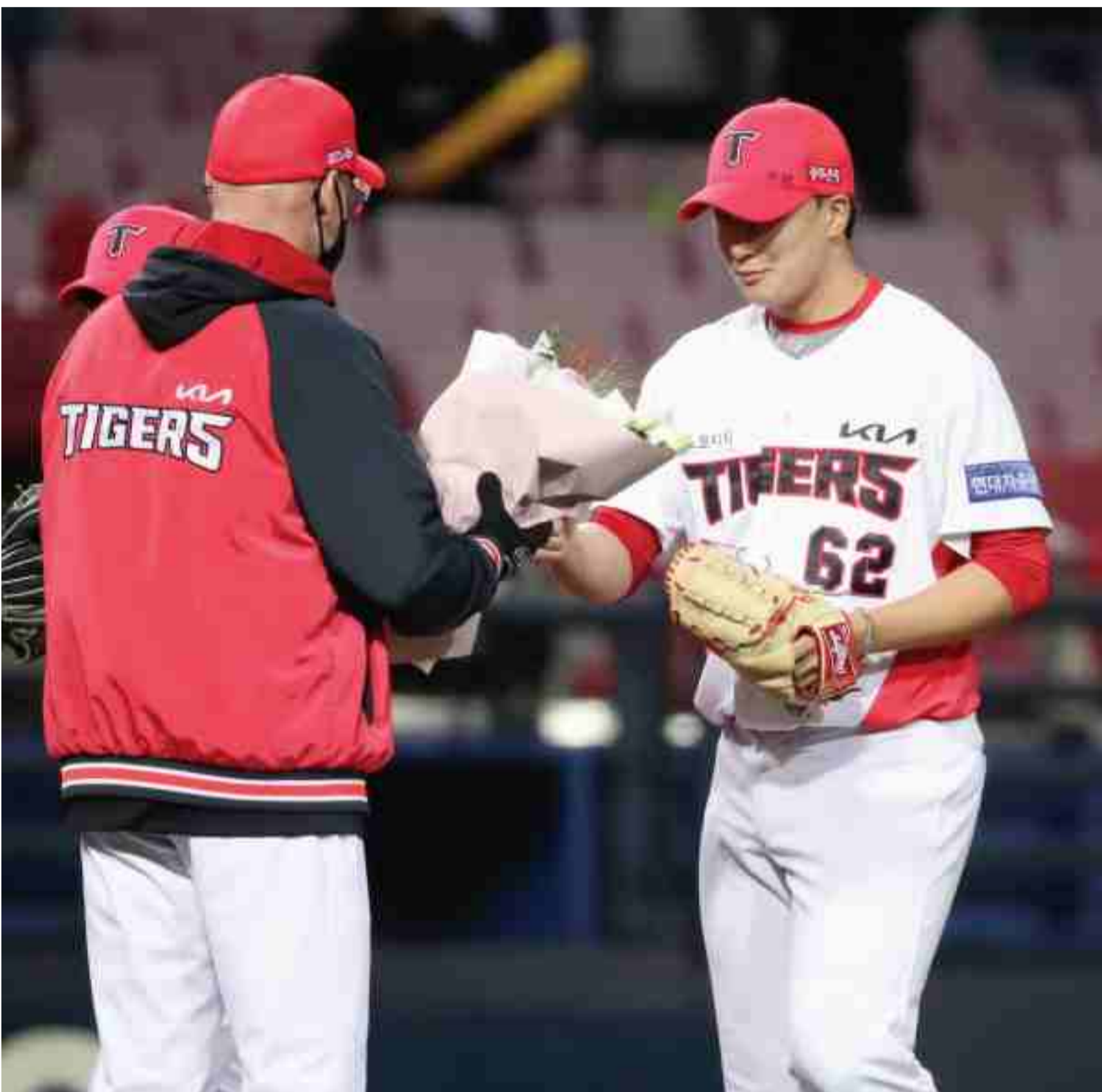
광주FC가 정규리그 마지막 승점 사냥을 위해 수원 원정길에 오른다. 광주는 24일 오후 3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24라운드 정규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5연패의 절박한 상황에서 떠나는 원정길이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강원 원정에서 전반 22분에 나온 엄원상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2 역전패를 당

했다. 패배가 5경기 연속 이어지면서 재정비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광주는 이번 수원FC전이 끝나면 곧바로 파이널 라운드 경쟁에 돌입해, 잔류를 위한 승부를 벌여야 한다. 파이널라운드에서 앞서 광주는 승점으로 분위기 전환을 이뤄야 한다. 강원전에서 골 맛을 본 엄원상을 중심으로 최전

방 공격수 허을의 부지런한 움직임을 활용해 상대 골대를 뚫겠다는 각오다. 또 엄지성과 두현석 등 측면 자원의 스피드와 김종우의 키패스로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수문장 윤보상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수비진에도 힘이 실렸다. 윤보상은 앞선 강원전에서 2실점은 했지만 6차례 선방쇼를 펼치면서 광주의 골문을 지켰다. ‘센터백 콤비’ 한희훈과 알렉스도 각각 13개의 클리어링을 기록하면서 좋은 호흡을 과시했다. 이번에 만나는 수원FC는 한승준, 김승준, 이영재, 라스 등 주축 선수들의 맹활약에 힘입어 현재 4

위를 기록, 파이널A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운 수원FC는 리그 득점 3위(44득점)에 올라서는 등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한다. 어려운 상대지만 광주는 상대전적 13승 4무 6패를 기록, 수원FC에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또 수원FC는 46골을 내주면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허용했다.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광주 공격진이 자신 있는 플레이로 연패 사슬을 끊고 승점을 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라운드에서 ‘4강’을 확정지은 전남드래곤즈는 3위 싸움을 이어간다.

전남은 23일 오후 6시 30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김천상무와 35라운드 대결을 갖는다. 앞선 라운드에서 두 팀은 각각 4강과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뤘다. 전남은 부산아이파크와의 34라운드 홈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두면서 4강 싸움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천상무도 부천전 1-0 승리로 K리그1 복귀를 확정했다. 4강 목표는 이뤘지만 아직 전남의 순위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3위 대전하나시티즌과 승점 3점 차다. 3위 어드벤처를 안고 준플레이오프를 치르기 위해 전남이 승리를 목표로 원정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2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kt wiz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3-0으로 앞선 9회에 등판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KBO 역대 최연소 30세이브를 달성한 KIA 정해영이 윌리엄스 감독으로부터 축하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정해영, 최연소 30세이브 ...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KBO 역사에 이름 남겨  
장현식과 함께 KBO 6번째  
‘동일 구단 30홀드-30세이브’



KIA 타이거즈 정해영은 지난 20일 KBO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이날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3-0으로 앞선 9회 출격 한 정해영은 유한준, 호잉을 땅볼로 처리한 뒤 대타 신봉기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시즌 30번째 세이브를 수확했다.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나온 순간, KBO의 최연소 30세이브 기록이 바뀌었다. 이날 정해영은 20세 1개월 27일에 30세이브를 기록하면서 2019년 LG 고우석이 가지고 있던 21세 1개월 7일이라는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리고 이 세이브와 함께 정해영은 선동열, 임창용, 윤석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타이거즈 역사에도 이름을 남겼다. 앞서 타이거즈에서 30세이브를 기록한 투수는 선동열(31세이브 1993년, 33세이브 1995년) 임창용(34세이브 1998년), 윤석민(30세이브 2015

년) 세 선수밖에 없다. 또 하나 기록이 더해졌다. 바로 KBO리그 6번째 ‘동일 구단 30홀드-30세이브’ 기록이다. 정해영에 앞서 팀의 리드를 잇는 장현식은 앞서 지난 16일 두산 원정에서 30홀드 고지를 넘었다. 그리고 ‘마무리’ 정해영도 30세이브에 성공하면서 ‘30홀드-30세이브’ 듀오가 탄생했다. 앞선 기록의 주인공은 2006년 삼성 권오준(32H)-오승환(47S), 2012년 SK 박희수(34H)-정우람(30S), 2014년 넥센 한현희(31H)-손승락(32S), 2015년 삼성 안지만(37H)-임창용(33S), 2019년 SK 서진용(33H)-하재훈(36S)이었다. 승리보다 패배가 더 많은 9위 팀에서 완성된 기록이라 더 의미가 있다. 특히 장현식과 정해영은 시즌 막판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일단 실패가 좋은 경험이 됐다. 장현식은 “전반기부터 이렇게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점수를 안 주려고 했는데 더 점수를 줬다. 편하게 하자는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정해영도 “전반기 때는 주자를 안내보려고 해서 볼넷도 많았다. 후반기 들어서 볼넷 세이브가 있었는데 장타를 안 맞으려고 했었다”며 “최대한 맞더라

도 직구로 맞아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선두 타자를 잡아줬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경험을 살려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던 부분에는 바로 ‘체력’이 있었다. 두 선수는 후반기 좋은 페이스를 이야기하면서 공통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 장현식은 “겨울을 잘 준비했고, 1년 내내 꾸준히 운동한 덕분에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중간에 힘들기도 하고 좋지 않았을 때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다. 꾸준히 노력한 게 좋은 결과로 나왔다”고 언급했다. 정해영도 “후반기 들어서 웨이트 루틴을 확실하게 가져갔던 게 스피드도 많이 나오고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올 시즌을 앞두고 윌리엄스 감독이 강조했던 ‘체력’에 대한 노력이 결실로 이어진 셈이다. 윌리엄스 감독도 이에 대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올해(코로나19로 인한) 환경상 원하는 운동을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두 선수가 부지런하게 계속 노력을 했다. 열심히 노력한 것이 성과로 나온 것 같다”며 “두 선수 모두 열심히 했고, 꾸준히 한 부분에 대해 칭찬을 해주고 싶다. 올 시즌 성공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기록의 발판이 된 이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한국 축구 FIFA 세계랭킹 35위

벨기에 1위·브라질 2위

한국 축구가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랭킹 35위로 지난달보다 한 계단 높은 곳에 자리했다. 한국은 FIFA가 21일 발표한 남자축구 세계랭킹에서 1489.1점으로 35위에 올랐다. 지난달 16위 발표된 랭킹 36위(1479.41점)에서 한 계단 올라섰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이날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 4차전에서 1승 1무의 성적을 냈다. 7일 시리아와 홈 경기에서는 2-1로 이겼고, 12일 이란과 원정 경기에서는 1-1로 비겼다.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이 이란(22위), 일본(28위), 호주(34위)에 이어

4위를 유지했다. 우리나라 월드컵 최종예선 상대인 아랍에미리트(UAE)는 71위, 이라크는 72위, 시리아는 85위, 레바논은 92위다. 이날 카타르 월드컵 예선을 비롯해 친선 경기와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결승전 등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160경기가 열리면서 세계 랭킹에는 일부 변화가 생겼다. 랭킹 1위와 2위는 각각 벨기에(1832.33점)와 브라질(1820.36점)이 굳게 지킨 가운데, 지난달 4위로 밀렸던 프랑스(1770.24점)가 3위를 되찾았다. 5위 이탈리아(1750.52점)가 4위로 올라섰고, 잉글랜드(1750.16점)는 3위에서 5위로 밀려났다.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3차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잉글랜드) 대 아탈란타(이탈리아)의 경기에서 맨유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팀의 세 번째 골이자 결승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챔스 사나이’ 호날두 또 역전 결승골

맨유, 3-2 아탈란타에 승리  
2연승으로 조별리그 선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또 한 번 역전 결승 골을 폭발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잉글랜드)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선두로 이끌었다. 맨유는 21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아탈란타와의 2021-2022 UCL 조별리그 F조 3차전 홈 경기에서 아탈란타에 전반 두 골을 내준 뒤 후반 세 골을 터뜨려 3-2로 승리했다. 지난달 15일 1차전에서 영보이스(스위스)에 1-2로 탈미를 잡힌 뒤 30일 비야레알(스페인)에 2-1로 역전승하며 방동했던 맨유는 2연승을 수확, 승점 6을 따내 조 선두로 올라섰다. 아탈란타는 1승 1무 1패로 승점 4(골 득실 0)를 기록, 이날 영보이스를 4-1로 물리친 비야레알(승점 4·골 득실 +2)에 골 득실에서 밀려 3위에 자리했다. 출발은 아탈란타가 좋았다. 전반 15분 마리오 파살리치가 오른쪽 측면에서 날아든 다비데 차파코스타의 낮은 크로스를 왼발로 밀어 넣어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전반 29분엔 코너킥 상황에서 메리코 데미랄의 헤딩 골까지 터져 아탈란타는 전반을 2-0으로 앞선 채 마쳤다. 하지만 후반 맨유의 대반격이 펼쳐졌다. 후반 8분 브루누 페르난데스의 원거리 패스가 정확히 연결되자 마커스 래시퍼드가 페널티 지역 왼쪽을 쇄도해 들어가 오른발 슛을 꽂았고, 후반 30분엔 주장 해리 매과이어의 동점 골이 터져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후반 36분엔 호날두가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루크 쇼의 왼발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 넣어 역전 결승 골이 나왔다. UCL 역대 득점 1위에 빛나는 호날두는 자신의 기록을 137골로 늘렸다. E조의 바르셀로나(스페인)는 디나모 키예프(우크라이나)를 1-0으로 잡고 2연패 뒤 조별리그 첫 승을 신고, 승점 3으로 조 3위에 자리했다. H조의 첼시(잉글랜드)는 말피(스웨덴)를 4-0으로 제압, 이날 제니트(러시아)를 1-0으로 따돌리고 3연승을 거둔 유벤투스(이탈리아·승점 9)에 이어 조 2위(승점 6)에 이름을 올렸다. G조에서는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가 볼프스부르크(독일)를 3-1로 물리쳐 3경기 무패(2승 1무)로 선두(승점 7)를 질주했고, 1-1로 비긴 세비야(스페인·승점 3)와 릴(프랑스·승점 2)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